

<술술랩> 최종 선정 결과 안내

<술술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종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본 공모에는 총 63건(①융합의 술술 38건, ②과정의 술술 25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최종 12건, 예비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시 기간 조율 및 행정사항 안내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공모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4년 7월 25일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 선정 결과

○ 융합의 술술

- 최종 선정 : 6팀(또는 개인)

구분	연번	대표자명	프로젝트명	선정금액(만원)
융합의 술술	1	초현실미디어(김지선)	모든 상상으로부터의 자유	1,600
	2	소수빈	인공의 섬의 어떤 미래 : 재활용 생태공원 선유도	1,700
	3	네비게이터(김정은)	헬로우 스트레인저 Hello Stranger	1,600
	4	이은정,조혜정(조혜정)	ATTENDANT	1,700
	5	김동현	에코하프	1,700
	6	L.A.B.(유장우)	글래스 아일랜드 Glass Island	1,700

※ 연번은 심사평점과 무관합니다.

- 예비 선정

구분	연번	대표자명	전시명	선정금액(만원)
융합의 술술	1	아쏘드(김찬기)	Momentum Bearing	1,600
	2	박이노(노지영)	A Seventh Being/ 제7의 존재(가제)	1,600

※ 최종 선정팀 중 포기자 발생 또는 일정 조율이 불가한 경우 차순위자 연번 순으로 선정(개별 연락)

○ 과정의 술술

- 최종 선정 : 6팀(또는 개인)

구분	연번	대표자명	프로젝트명	선정금액(만원)
과정의 술술	1	김재익	거리감에 대한 단상 - Depth, Texture & Color Movement 기술연구	300
	2	강현아	메타모픽 선유: 자연의 재구성	300
	3	이진	찾았고, 놓쳤던 소리	300
	4	김영비	탈문자 시대, 감각적 충돌의 영등포	300
	5	진향기	문래의 파도	300
	6	최유희	이목구비(耳目口鼻)	300

※ 연번은 심사평점과 무관합니다.

- 예비 선정

구분	연번	대표자명	전시명	선정금액(만원)
과정의 술술	1	방선우	잡초 정원	300
	2	김진경	도림천 할배	300

※ 최종 선정팀 중 포기자 발생 또는 일정 조율이 불가한 경우 차순위자 연번 순으로 선정(개별 연락)

□ 심사 개요

○ 심사 기준 ※ (공통) 우대사항(가점 5점): 영등포구 소재 거주지 또는 작업실을 보유한 자(별도 증빙자료 제출)

- 융합의 술술

기준	세부기준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	· 계획의 적정성 및 체계성 · 실행계획의 구현가능성 · 예산의 합리성	· 본 지원사업 취지의 부합성 및 이해도 · 계획서의 적정성 및 프로젝트 구현 가능성 · 지원자의 기획력 및 예산의 합리성	25
예술성	· 창·제작품의 참신성 및 완성도 · 기술 활용의 창의성 · 예술적 완성도 및 전문성	· 창작 의도의 명확성 및 완성도 · 예술기술 융합 활용 및 형태의 참신성 · 작가의 전문성(창작경력 등) 및 작품의 완성도	30
이해도	· 융합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방안의 구체성 · 지역 이해도	· 예술·기술 융합에 대한 이해 및 활용기술에 대한 구체성 · 영등포 도시기반 리서치 및 지역 이해도	25
기대효과	· 활동역량의 확장성 · 발전 가능성	· 융복합 분야 활동의 예술적 기여도 · 향후 예술·기술 융합 우수 창작사례로의 발전 가능성	20
총합			100

- 과정의 술술

기준	세부기준	평가지표	배점
사업계획	· 계획의 적정성 및 체계성 · 실행계획의 구현가능성 · 예산의 합리성	· 본 지원사업 취지의 부합성 및 이해도 · 계획서의 적정성 및 프로젝트 구현 가능성 · 지원자의 기획력 및 예산의 합리성	25
예술성	· 프로젝트의 실험성 및 독창성 · 기술 활용의 창의성 · 예술적 완성도 및 전문성	· 프로젝트 의도의 명확성 · 프로젝트의 실험성 및 완성도	30
이해도	· 융합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방안의 구체성 · 지역 이해도	· 예술·기술 융합에 대한 이해 및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 구체성 · 영등포 도시기반 리서치 및 지역 이해도	25
기대효과	· 활동역량의 확장성 · 발전 가능성	· 새로운 프로젝트 및 창작활동으로의 연결성 · 향후 예술-기술 융합 우수 창작사례로의 발전 가능성	20
총합			100

○ 심사위원 : <술술 위원회> 예술×기술 융복합 지향사업 자문위원 및 외부전문가 총 6인

연번	성명	소속/약력	비고
1	김성희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2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3	손상원	(주)디아랩 대표	
4	오정은	미술평론가	
5	왕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장	
6	홍경한	미술평론가	위원장

○ 심사총평

○ 당락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긴 시간을 할애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대면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우기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 등은 모두 매우 수고로운 일입니다. 전시 기회 확보와 자신의 예술적 실험을 통한 자기발전의 중요성에 기댄 응모임을 모르진 않으나 어쨌든 과정 자체는 번거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심사위원단은 심사평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술술랩> 공모에 지원해주신 작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전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해당 사업이 더욱 가치를 지닐 수 있었습니다.

○ 일단 포괄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에는 예술적 창의성과 기술력의 결합을 통해 흥미로운 결과물이 예상되는 작품들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예술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감성·감각적 표현력이 우수한 작품들도 있었고, 시청각적 조형요소가 조화롭게 담긴 작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몇몇 작업들은 사용된 기술의 수준과 적절성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늠케 했고, 기술 구현의 정확성과 창의적인 활용에서 역시 높은 점수가 가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획만이 아닌, 작품의 실제 구현 가능성 면에서 긍정적이거나 얼마 남지 않은 페스타 기간을 고려한 재정적, 시간적 측면에서의 현실성 등에서도 인상적인 작업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심사위원단은 오랜 회의 끝에 각 작품의 예술적 표현의 완성도를 비롯해 예술성과 사업의 이해도, 사업계획의 성실성 및 기대효과, 기술적 역량과 혁신성,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예술가 개인의 발전 가능성 역시 주요 선정 기준으로 삼았으며 '영등포'라는 지역성을 화두로 한 고유한 메시지의 창출에도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의 고민을 거듭한 후 '융합의 술술'은 38명(팀)의 지원자 중 1차로 12명(팀)을 서류 통과자로 선정했으며, '과정의 술술'은 25명(팀)의 지원자 중 1차로 14명(팀)을 서류 통과자로 선정했습니다.

○ 2차 심사는 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면심사는 대체로 지원자들에게 긴장감을 심어주고 짧은 시간 내 기획안에 대해 피력해야만 하는 특성상 평소와는 달리 보다 풍부한 정보 전달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심사와는 달리 대면 심사는 지원자와 직접 만나 작품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들은 보다 정확한 작품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즉각적인 질의응답을 거침으로써 작품의 적정성을 살필 수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면심사는 서류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여러 궁금증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즉, 텍스트에선 잘 읽히지 않던 차별성과 독창성을 더욱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하신 작가님들도 그러한 대면심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시리라 여깁니다.

○ '융합의 술술'과 '과정의 술술'에 최종 선정된 작가(팀)는 모두 12명(팀)입니다. 심사기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의 성실성과 적정성, 창·제작 작품의 참신성 및 완성도(예술성), 해당 사업과 융합에 대한 이해도, 활동역량의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의 취지와 부합성을 따졌고, 창작의도의 명확성과 영등포를 기반으로 한 리서치, 지역에 관한 독창적 해석 등도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향후 예술-기술 융·복합 우수 창작사례로의 발전 가능성 또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 이번 <술술랩> 공모에 제출된 모든 작품들은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우리 작가들이 다양한 매체와 방법론을 통해 동시대 미술의 흐름은 물론, 지역관련 이슈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팬데믹을 겪으며 예술기술 융합의 화두가 높아졌는데, 그만큼 유사한 형식의 반복도 많아 예술현장에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도 사실입니다. 선정된 작가(작품) 중에서도 기술, 미디어에 집중된 반면 예술적 관점, 태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게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향후 함께 할 큐레이터와 협의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수정, 보완되거나 조율·변형·발전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술술랩>에 응모해주시고 심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작가님들과 기획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자 모두에게 기회를 드릴 순 없었지만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응모한 작품들은 모두 향후 동시대 한국 미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심사위원단은 해당 공모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선정된 작가님들의 경우 예술가로서 기존의 자기 작업과의 연결성을 갖고 비전과 결부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로 만들어주길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사위원 일동

□ 향후 일정

○ 선정자OT : 2024. 7. 29.(월) 14시 술술센터 4층 술술홀 (예정)

□ 기타 문의 : ☎ 02-2634-2237/2258